

# 광주그린카진흥원장 해임 요구 '시끌'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직원들이 부적절한 업무행태를 이유로 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장이 자동차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관련 기관을 사조직화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맞물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그린카진흥원 직원 22명은 최근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주시에 원장 해임요구서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성명을 통해 "원장이 취임 이후 광주 자동차산업의 발전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지역 기관과

## 광주시 출연기관 잡음 끊이지 않아

### 직원 22명 해임요구안 제출 '촉각'

의 협업을 방해하는 등 무능과 불통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광주시가 조직한 '자동차 특이단' 활동을 통해 진흥원과 자동차산업 관련 기관을 사조직화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장이 조직원과 지역 자동차 관계자들을 농락하고 그린카진흥원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할 줄 모르고 혁신하지 않는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해임요구서에는 직원 채용 의욕과 작관남용,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적절한 업무행위 사례 22건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에 출연한 준 공공기관에서 일선 직원들이 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다분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자동차산업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한 감사까지 폭넓게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린카진흥원의 직원들이 원장 해임요구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며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후속절차를 밟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2011년 민선 6기 최대 현안인 친환경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위해 광주시가 출연해 설립한 기관이다. 당초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으로 출범했다가 지난 2015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서은홍 기자

## 獨 경찰, 테러 공격 계획한 6명 체포

베를린 경찰이 8일 베를린 하프마리톤 대회 공격을 계획한 6명을 체포했다고 독일 당국이 밝혔다.

베를린 경찰과 경찰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하프마리톤대회 공격을 준비하던 18~21살의 남성 6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독일 디벨트는 이들이 대회 참가자와 관중들을 칼로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경찰이 검찰과의 협력 아래 이들을 체포함으로써 공격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전했다.

디벨트는 체포된 용의자들 중 주범은 지난 2016년 12월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에 트럭을 몰고 돌진해 12명이 죽고 수십명이 부상하게 한 튀니지 출신 범인 아니스 알리리와 잘 알고 있는 자로 경찰이 이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급습한 아파트 중 한 곳은 2016년 사건 때도 조사를 받았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디벨트는 또 경찰이 체포한 6명의 남성 외에 또다른 4명도 공격 계획과 관련해 구급 중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체포된 주범은 공격을 위해 칼 두 자루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신문 타게스슈피겔은 베를린 경찰이 주범이 하프마리톤 대회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외국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2주 간 24시간 내내 경찰의 감시를 받아 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8일 새벽 샤를로테부르크와 노이펠른 두 지역의 아파트를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

이날 베를린 하프마리톤 대회는 약 630명의 경찰 경계 속에 무사히 치러졌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 칠레 네바도스데치안 화산 경보 격상

칠레 중부 안데스산맥에 있는 네바도스데치안 화산에서 대규모 연기가 분출해 당국이 화산 경계경보를 1단계 격상했다고 AF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칠레지질연구소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네바도스데치안 화산에서 목격된 폭발 징후를 감안해 화산 경계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 중 바로 아래 단계인 주황색 경보로 1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칠레지질연구소 조사단과 현지 경찰은 전날 분화구에서 대규모 연기 분출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분화구에서 분출할 가능성이 있는 용암의 흐름과 주변 상황을 추적하는 10여개 관측소에서 4000여 차례 진동과 800여 차례 폭발을 관측한 자료도 확인했다.

네바도스데치안 화산 경계 경보는 2015년 후 2번째로 낮은 황색경보를 유지했으나 지난 해 12월 후 화산재 분출 횟수가 증가해 당국은 당시 한 단계 상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네바도스데치안 화산은 울창한 숲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17개 분화구로 이뤄졌다. 1861년부터 2009년까지 크고 작게 약 10차례 폭발한 이 화산이 마지막으로 대규모로 폭발한 기록은 1973년이였다. 당시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 이 지역은 스키장과 호텔이 밀집된 관광지이지만, 인근에 주요 도시는 없다.

## 뉴욕 트럼프라워 화재로 1명 사망·4명 부상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라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4명이 부상했다고 CNN 등 현지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뉴욕 소방청(NYFD)을 인용해 사망자는 이 건물 50층에 거주하던 입주민으로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숨졌다고 전했다. 앤젤라 콘로이 뉴욕 소방청 대변인은 "화재는 트럼프라워 50층에서 일어났으며 현재 불은 꺼진 상태"라고 말했다.

콘로이 대변인은 "화재 진압 중 소방관 4명이 부상했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니얼 니그로 뉴욕 소방청장은 "화재 당시 트럼프라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은 없었다"고 말했다.

화재는 7일 오후 6시를 넘지 않은 시간에 트럼프라워 50층에서 발생했다. 진화는 6시45분께 완료됐다고 NYFD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트럼프라워의 화재는 진화됐다. 소방관들은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다. 고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아들인 에릭 트럼프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라워의 불을 끈 NYFD의 멋진 소방관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건물 안에 사무실과 주거 공간을 갖고 있지만 화재 당일인 7일에는 뉴욕에 있지 않았다. 트럼프라워에는 올해 1월에도 화재가 일어나 민간인 2명과 소방관 1명 등 3명이 다친 적이 있다. 당시 소방당국은 냉각 시스템 문제로 불이 났었다고 전했다.

## 전남 가축시장 15곳 폐쇄 23일까지 연장

전남도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전남지역 가축시장 15곳에 대한 폐쇄조치를 오는 23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3월 27일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시장을 2주간 폐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최초 발생 농장과 차량 역학 관련이 있는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가 구제역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고 전국적으로 폐지에 A형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폐쇄 기간을 연장기로 했다.

가축시장 폐쇄 기간 동안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지역축협에서는 가축시장 내외부의 분뇨 등 오염물 제거와 일체청소 및 소독을 하고 차량 소독시설 및 대인소독기를 정비해야 한다.

김상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염소와 어미 돼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비유패지는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항체 형성 또는 백신접종 전 예방을 위해 매일 임상예찰과 소독·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1588-9000, 1588-4000)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유채꽃 핀 독방길 9일 오후 경남 남해군 고현면 관음포 독방길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해 상춘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 광주 문화·예술단체 “7기 2018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재구성” 촉구

광주지역 시민·문화·예술단체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시민연대)'는 9일 "정부가 발표한 제7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는 특별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며 "민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원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제7기 조성위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조성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제도·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며 "민간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협치를 토대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7기 조성위 출범 못지않게 주목한 부분은 민간위원의 다양성과 민주성의 담보였지만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성사업 정상화의 첫 단추로 여겼던 전당장과 문화원장의 공모 과정, 7기 조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까지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참여는 물론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이는 조성사업 과정에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6기 조성위 임기 만료 이후 1년여 동안 방치되다가 구성된 7기 조성위는 '장교 끝에 악수'로 평가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권 10년 동안 망가진 조성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시

민과 문화예술계를 협치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7기 조성위 민간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최권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간위원 13명과 당원직 위원 14명 총 27명으로 임기 2년(2020년 4월5일)의 제7기 조성위를 구성했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최권영 서울대 교수, 김혜원 커뮤니케이션스 코리아 부사장(부위원장),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 남호정 전남대 교수,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 심원섭 목포대 교수, 우은택 카이스트 교수, 이무용 전남대 교수, 정유나 상명대 교수, 최규학 한국외대 초빙 교수, 한승미 연세대 교수, 허진 전남대 교수, 황승훈 국민대 교수 등이다.

조인호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 IN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건강기 건강진단
- 영양이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 항목	진행률	감소율
심혈관 질환 발생률	42%p 감소	
암 발생률	18%p 감소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